

광주비엔날레 D-2...개막 분위기 고조

미술교사 등 300명 초청 프레 오픈 행사  
프레스 오픈, 미술·언론인 100여명 참여

07 연례보고 08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3~4일 이틀간 국내외 미술계인사와 해외 언론에 제7회 광주비엔날레의 작품과 전시장 내부를 공개하는 프레-프레스 오픈 행사를 잇따라 갖는 등 개막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또 2일 성공비엔날레의 견인차 역할을 할 성인·청소년도슨트, 통역요원, 자원봉사자들의 현장 배치·실습을 모두 마치는 등 개막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재단은 3일 오후 2시 북구 중외공원내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프레오픈 행사를 갖는다. 프레오픈에는 광주·전남지역 중·고교 교장단과 미술교사 등 200여명과 미술대학 교수 등 미술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오쿠이 엔쥬어 예술총감독으로부터 이번 전시의 특징과 작품 설명을 듣게 되며, 전시 공간인 광주비엔날레관, 시립미술관, 대

인시장, 의재미술관, 광주극장을 차례로 둘러본다. 또 4일 예정된 프레 오픈에도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훨씬 늘어난 국내외 언론인들이 참여한다. 프레 오픈에는 데이빗 엘리엇(Davit Eliot) 일본 모리미술관 관장(전 국제현대 미술박물관 위원회 상임위원장), 크리스찬 라템마이어(Christian Rattemeyer) 뉴욕현대미술관(MoMA) 큐레이터, 케이 소피 라템마이어(Cay Sophie Rattemeyer)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 감독 등 세계 미술계를 이끌고 있는 유명 인사 70여 명이 참석한다. 또 뉴욕 타임스(미국), 산케이신문(일본), 르 몽드(프랑스), 인민일보(중국), 저먼TV(독일), 러시아 NTV, 플래쉬아트(Flash Art) 등 40여명의 해외 언론인들도 광주를 찾는다. 이는 지난 2006년 제6회 대회에 비해 2배 가량이 많은 수치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40분 오쿠이 감독의

전시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전시를 관람한 뒤 국내외 언론에 광주비엔날레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 개막 이후 행사 진행을 도울 자원봉사 등의 발대식과 현장 실습도 2일로 모두 마무리됐다. 재단은 이날 중외공원내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를 마무리하고, 작품이 설치된 전시장에서 관람객을 안내하는 요령 등을 터득하는 현장실습도 실시했다. 이번 광주비엔날레에는 ▲시민 도슨트(docent·전시해설사) 61명 ▲청소년 도슨트 29명 ▲통역요원 12명 ▲자원봉사자 140명이 활약하게 된다. 한편 개막식은 5일 오전 10시 광주문화회관에서 '빛의 사람들 0708' 행사를 통해 선정된 시민 708명 등 1천800여명이 초청된 가운데 열린다. '빛의 사람들 0708'은 시민들이 개막식에 참석한 사람을 직접 뽑은 릴레이 추첨 행사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7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앞둔 2일 광주 중외공원내 비엔날레 전시관 주변에는 신기한 꽃탑이 들어서 등 개막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영구 보존 작품 설문조사로 뽑는다 30일까지 관람객 등 의견 모아 선정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제7회광주비엔날레 출품작 중 영구 보존할 기념작품을 찾는다. 재단은 2일 "이번 광주비엔날레에 소개되는 36개국 127명의 작가의 작품 1천여점 중 영구 보존할 기념작을 뽑기 위해 관람객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프레오픈이 열리는 4일부터 30일까지이며 관람객 230명, 언론인 40명, 전문가 30명의 의견을 모으게 된다. 설문지는 전시장에 비치하며, 언론인과 전문가 설문은 프레오픈 때 미리 취합한다. 조사가 끝나면 관객 30%, 언론사 35%, 전문가가 35%로 반영률을 정해 후보작품 10점을

선정한 뒤 재단 이사회 예술소위원회에서 최종 1점을 결정하게 된다. 재단은 작가와 기증협의를 거쳐 폐막식(11월9일) 때 영구 소장 작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재단은 1회(1995년) 대상작인 크흐의 '잃어버리기 위하여' 등 모두 7점의 전시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

정율성 선생 삶·음악세계 조명

영화 제작 잇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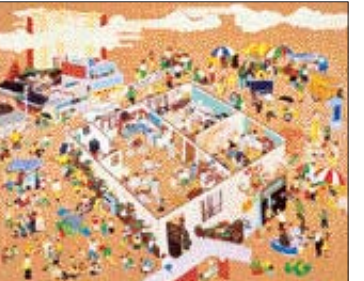
'악기가 없어도...' 내주 크랭크인 '더 히스토리' 마무리 작업 한창

'중국 국가' 작곡가인 네일, '황하 대합창'의 작곡가 센상하와 더불어 중국의 3대 음악가로 불리는 정율성(1914~1976·시진) 선생의 삶과 음악세계를 다룬 영화들이 잇따라 제작되고 있다. 정율성기념사업회는 2일 하딩리관광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영화 촬영 등 진행중인 사업들에 대한 경과보고 자리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동시대 차두옥 방송연예학과 교수는 다큐멘터리 영화 '악기가 없어도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모든 촬영 준비를 마치고 다음주 크랭크인을 앞두고 있으며, 독립영화 '더 히스토리'는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 영화 '악기가 없어도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중국을 비롯해 광주, 화순, 전주, 목포 등을 찾아 정율성 선생의 흔적을 담은 예정이다. 제작 및 총지휘는 차두옥

교수가, 각본과 감독은 광주 출신의 극작가 김시우씨가 각각 맡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가장 먼저 촬영에 들어갔던 독립영화 '더 히스토리'는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김시우씨가 연출을 맡은 이 영화는 개그맨 김태희, 연기과 배우 최종원 등이 이미 촬영을 마친 상태이며 영화 후반부에 삽입될 애니메이션 수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100억 여원을 투입해 한·중·일 3개국어 공동 제작할 계획이었던 영화 '바이올린'은 세트장과 투자자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히스토리' 등 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차 교수는 "영화제작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바이올린'을 제외한 두 편의 영화는 10월 23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4회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기간에 맞춰 상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출신인 정율성 선생은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인민해방군인 '팔로군 행진곡'과 중국의 아리랑으로 불리는 '엔안송' 등 360여 곡을 작곡해 중국 현대 음악의 대부로 추앙받고 있는 혁명음악가이다. /이은미기자 emlee@

광주시립미술관 창작 스튜디오 '2008 오픈 스튜디오' 전시회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의 양산동·팔각정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이 '2008 오픈 스튜디오' 행사를 갖는다. 입주 작가들이 12일까지 창작스튜디오에서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갖고, 자신의 작업실을 공개하는 행사이다. 리는 전시회에는 공대연, 임남진, 한부철, 정경춘, 이기성, 조승기 등 양산동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와 진시영, 김재성, 김정연 등 팔각정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들이 참여한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지난 199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됐으며, 지역 작가들에게 작



임남진 작 '풍속도' 품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창작을 지원해 주고 있다. 문의 062-510-0140. /오광록기자 kroh@

故 박효선 10주기 추모 행사 6일 공동 예술의 거리 민들레 소극장

지난 1998년 간암으로 사망한 오월광대故 박효선 10주기 추모 행사가 오는 6일 오후 4시 광주시 공동 예술의 거리 민들레 소극장에서 열린다. 문화운동 1세대로 꼽히는 박씨는 1979년 극회 '광대'를 창단 '돼지풀이 마당' 등 다양한 작품을 제작, 무대에 올리면서 문화 운동의 주축으로 자리잡았다. 5월 민중 항쟁 당시 항쟁지도부 홍보부장으로 활동하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박씨는 1983년 극단 토박이를 창단 '금희의 오월', '모란꽃', '청실홍실' 등 이른바 '오월 3부작'을 무대에 올렸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박문옥, 윤진철, 옛 노래대 '친구', 내뱃소리의 노래와 연주자 이어지며 제주도 놀이패 할라산이 '세경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또 정희삼·고광연·김영학씨가 추억담을 이야기하며 영상으로 고인의 생전 모습을 만나보는 시간도 갖는다. 문의 062-222-6280. /김미은기자 mekim@

황석영의 '개밥바라기별' 등 '9월의 읽을 만한 책' 10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민병욱)는 '9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 황석영의 자전적 성장소설 '개밥바라기별'(문학동네) 등 분야별 도서 10종을 선정해 2일 발표했다. 선정 목록에는 백범 일지에 대해 텍스트분석을 시도한 '올바르게 풀어서 백범일지'(김구 지음·배경식 풀이·너머북스)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기후 커넥션'(로이 W·스펜서 지음·이순희 옮김·비아북)이 포함됐다. 이밖에 '가치는 어디로 가는가'(제물 뱀대 엮음·이선희·주재형 옮김·문학고지성사)와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베르나르 앙리 레비 지음·박정자 옮김·프로네시스)도 선정됐다. /연습스



**메가박스**  
구.관동역사거리 ♥에메1544-0600  
1관 맘마미아 (12세) 최고급관  
2관 맘마미아 (12세)  
3관 CJ7 (전제) /뽀머슬스리스 (15세)  
4관 다크나이트 (15세)  
5관 눈에는눈이에는이/신기전 (15세)  
6관 고사(15세) / 다짜마와 리 (12세)  
7관 놀놈 (15세) / 신기전 (15세)  
8관 스마트피플 (12세) /슈퍼히어로 (12세)  
9관 미드나잇 미트 트레인 (18세)

**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CJ7-장강7호(전제)/신기전 (15세)  
2관 당신이잠들사이애/X파일 (15세)  
3관 다크나이트 (15세)  
4관 월드컵/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5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6관 다짜마와 리 (12세) /미이라3 (12세)  
7관 맘마미아 (12세)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 뒷편)  
1관 고사 (15세) / 놀놈 (15세)  
2관 CJ7-장강7호(전제) / 님은 먼곳에 (15세)  
3관 맘마미아 (12세)  
4관 맘마미아 (12세)  
5관 아기와 나 (12세) / 눈에는 눈 (15세)  
6관 다크나이트 (15세)  
7관 신기전 (15세)  
8관 월드컵 / 미이라3 (12세)  
9관 신기전 (15세)  
10관 신기전 (15세)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미드나잇 미트 트레인 (18세)  
2관 아기와 나 (12세)  
3관 미이라3 (전제) / CJ7-장강7호 (전제)  
4관 슈퍼히어로 (12세) / 천사의 차마고도 / 블랙발론  
5관 눈에는눈이에는이(15세) / 다짜마와 리(12세)  
6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7관 다크나이트 (15세)

**하미 시네마**  
진대후문 하미포텍스 ☎ 267-7777  
1관 월-E-지막 (전제) / 엑스 파일 (15세)  
2관 아기와 나 (12세)  
3관 미드나잇 미트 트레인 (18세)  
4관 다짜마와 리 (12세)  
5관 CJ7-장강7호(전제)  
6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7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8관 다크나이트 (15세)  
9관 눈에는 눈이에는 이 (15세)  
10관 미이라3 (12세)

**제일 시네마**  
충정로 3가 ♥ARS 전화예약 227-1800 ♥  
1관 신기전 (15세) / 놀놈 (15세)  
2관 신기전 (15세) / 눈에는눈 (15세)  
3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4관 맘마미아 (12세)  
5관 다크나이트 (15세)  
6관 미드나잇 미트 트레인 (18세)

